

업계동정

유화업계, 불황카르텔 극적 합의 카르텔신청서 정식 제출기로

유화업계가 지난 10월 12일 불황 카르텔 형성의 관문인 기초 유분 수급조정문제를 사장단협의를 통해 난항 끝에 잠정 타결짓고 당국에 카르텔 신청서를 정식 제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화업계가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난 타개를 위해 자구책으로 벌이는 카르텔형성은 최근 그 가능성이 어두워지는 형국이었으나 극적으로 불황극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유공, 대림산업 등 9개 납사분해(NCC)업체 사장단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기초유분 수급조정 협의모임을 갖고 정부에 일단 PP, PE 등 유화제품에 대한 불황카르텔을 신청하고 나서 기초유분의 수급조정 논의를 계속기로 했다. 협의에 참가한 업체들은 이들 외에 대한유화, 현대석유화학, 삼성중합화학, 럭키, 한양화학, 동양나이론, 호남석유화학 등 9개사다.

이날 사장단협의회에서는 선기초유분 수급조정, 후카르텔 논의의 주장을 강하게 견지했던 대림산업측이 입장을 다소 후퇴, 카르텔 신청을 먼저 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타결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사장단은 유분수급조정

의 쟁점이던 단기간 거래 조정문제를 수요발생에 의한 물량교환 정도는 허용하되 수요의 판매는 금지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접근기로 했다.

유화업계는 이경식 부총리가 불황 카르텔을 불허하겠다고 밝혔으나 PE, PP의 국내 수요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드는 등 수급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빚어지고 있어 정부방침이 재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불황카르텔이 허용되더라도 현재 변동비를 밀도는 내수가를 기본적으로 수입가에 연동,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 만큼 특혜시비가 빚어질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

95년, 합성수지 공급과잉 해소 합성원료는 공급난 심화 예상

오는 95년에 합성수지는 현재의 공급과잉 상태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합성원료는 공급부족 사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공자원부가 주요 유화제품의 수급전망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및 PVC 등 합성수지류는 작년 70% 수준에 달했던 업계의 과잉설비율이 44%로 낮아져 수급이 현재보다 크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한편, 합성원료부문은 내수규모에 비해 공급이 23% 부족한 현재의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여서 95년에는 공급 부족율이 29%로 확대될 전망이다.

나일론, 폴리에스터, 아크릴 등 섬유의 원료가 되는 카프톨락탐, TPA, AN 등 합성원료류는 지난해 업계의 공급능력이 연 1백88만t 수준에 국내 수요량이 연 2백43만t 규모였으나 95년에는 공급능력 2백15만t에 수요량은 3백5만t 규모로 늘어난다.

합성수지는 지난해 국내 수요 연 3백만t에 공급능력 5백5만t이었으나 95년에는 수요가 3백81만t 규모로 크게 신장되고 공급능력은 거의 제자리인 5백48만t 수준이 될 것이라 전망이다.

8월, 산업생산 제조업 기동률 하락 실명제 일기불순 등 영향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지난 8월중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부진하고 제조업 기동률이 떨어지는 등 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투자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8월중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증가했으나 일기불순과 내수감소 등으로 지난 7월보다는

3.2%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더 낮아진 4.2% 수준에 머무르고, 설비투자도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정제(▽11.3%), 음식료품(▽8.8%), 기계·장비(▽7.5%), 담배(▽25.9%), 자동차(▽1.7%) 등은 감소를 보인 반면 사무회계용 기계(9.7%), 인쇄출판(5.4%), 의복 모피(4.3%)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제 일모직, STAREX세미나 개최
사출성형, SHEET, EPS 주제

지난 10월 22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STAREX '93 기술세미나가 열렸다.

A, B, C, D룸 네 개의 장소에서 각각 사출성형, SHEET, EPS, 금형을 주제로 세미나는 진행되었다.

A 룸에서는 靑葉堯 소장이 성형재료의 선정에서부터 설계원칙, 성형의 원리 및 방법, 금형기술 그리고 생산기술 및 주변 기술활용에 이르는 사출성형 관련 제반기술을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설명하였다.



◀ 제일모직 Starex 세미나

金澤信夫 과장은 투명 Sheet 및 기능성 Sheet에 대해 소개하고 기능성 Sheet에서 고풍택 Sheet, 이색 Color Sheet, 내유성 Sheet 등에 대해서 강의하였으며, 三浦高行 사장은 Sheet의 열성형 및 용도개발에 관해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EPS 성형공장의 합리화 및 개선 포인트에 관해서는 海琳俊克 상무가, 금형설계 제작의 기술관리에 대해서는 田村滿 기술고문이 각각 강의를 맡았다.

대 립, 환경운동 강화
관련부서 등 신설

대림그룹은 창립 54주년(10월 10일)을 맞아 전 계열사 사장실 직속으로 환경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환경보호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환경보호 운동을 그룹 차원에서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대림은 이와관련 지난 10월 9일 이준호 부회장을 비롯한 2천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자연보호 활동을 북한산에서 갖고 썬는 비닐을 등산객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벌였다.



▲ 대림산업(주) 석유화학사업부 임직원이 시민들에게 썬는 비닐을 나누어 주고 있다.

제 지관련설비 국산화 추진
상공부·업계 공동으로 진행

제지관련설비의 국산화가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추진된다.

상공자원부는 제지관련설비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94년부터 오는 96년까지 총 1백8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산·학·연 공동으로 설비국산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주요핵심설비에 대한 기술개발 및 국산화 ▲탈목공정 개선 ▲재생활용 기술개발 및 관련설비 국산화 ▲제지관련 폐수처리기술 및 관련설비 개발 ▲수출과 연계할 수 있는 설비개발 등을 목표로 삼고 한솔제지등 업계와 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소 기계연구원 등 연구기관, 경기대 경희대 등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집중적인 설비개체가 예상되는 3~4년후를 대비해 설비자동화를 추진하고 라인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과 펄프입자를 정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중점 개발해 관련설비의 수입대체를 이룩하기로 했다.

또 원목 구득난에 대비하기 위해

최적 탈목공정과 저공해 탈목제를 개발하는 한편 스티로폼을 대체하는 트레이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지산업의 부산물인 슬러지를 이용, 벽돌이나 보도블럭을 만드는 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계획을 추진키 위해 94년에는 개발기획조사 과제도출 시스템개발설계 공동기술개발을, 95년에는 상세설계 핵심부품설계·제작 요소기술개발을, 96년에는 시스템통합 시험평가 실용화기술개발을 각각 마치고 있다.

소 각장 건설계획 대폭수정
서울시, 99년까지 6개소만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이 대폭 수정, 또는 연기됐다.

서울시는 99년까지 총 11개소(하루 처리용량 1만6천3백50t)의 소각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키로 한 당초의 계획을 변경, 6개소만 건설하고 나머지는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97년까지 쓰레기 소각 비율 목표를 14.2%로 설정, 이에 맞춰 계획을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들어 착공한 상계소각장에 대해서도 타지역 쓰레기 처리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 당초 처리대상이었던 노원 중랑 동대문 등 3개구 중 노원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 처리키로 하고 하루 처리용량을 1천6백t에서 8백t으로 감량 조정할

바 있다.

시의 소각장 건설계획 수정에 따라 올들어 착공한 목동소각장 증설 및 상계소각장은 95년 말과 96년 2월까지 각각 완공하게 되며, 강남 송파구를 대상 지역으로 한 강남소각장(하루 1천8백t)과 용산 중구 마포구를 대상으로 한 마포소각장(하루 2천7백t)은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94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동 성동구를 대상 지역으로 한 강동소각장은 고덕동 424 일대 3만평에, 성북 도봉구를 대상으로 한 도봉소각장은 도봉동 4 일대 3만3천4백평에 각각 도시계획 결정을 마쳤으며

99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지를 계획이다.

시는 22개구 중 소각장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11개구는 구별 부지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지가 없어 인접구와 공동처리가 불가피할 경우에만 지역 주민들의 합의에 따라 공동확보키로 했으며, 착공은 모두 99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 경오염 위반행위
상의, 처벌완화 주장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환경감시거부행위 등을 제외한 환경관련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인쇄문화상 수상

울촌화학(주) 신재성 부사장

울촌화학(주)의 신재성 부사장(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고문)이 제9회 인쇄문화상 기술부문상을 수상했다.

인쇄문화상은 인쇄문화협회(회장 박충일)가 매년 「인쇄의 날」 및 협회창립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10년 이상 인쇄업계에 종사한 모범적인 인쇄관련인에게 주는 상으로 경영관리부문, 기술부문, 특별부문으로 나뉘어 시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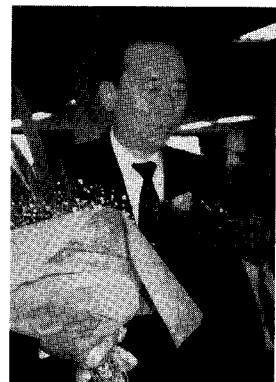
그외 수상자로는 경영관리부문에 윤병태 동양문화인쇄(주) 대표이사, 특별부문에 박무성 광명특수인쇄(주) 기술고문이 각각 선정됐다.

신재성 울촌화학(주) 부사장은 1968년 일본 통신성산하 해외기술자연수협회 초청장학금으로 대일본인쇄(주)에 1년간 그라비아인쇄 기술연수를 받은 후 줄곧 그라비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인쇄인이다.

그라비아 인쇄분야에서 최초로 일본기술을 도입하고 학교 강의를 비롯한 전문서적을 발간하는 등 기술인 양성에 힘써왔다.

저서로는 「그라비아 인쇄와 연포장 기술」 등이 있다.

신재성 부사장은 “그동안 그라비아 인쇄가 인쇄분야에서 소외돼 있었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인쇄문화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형벌위주의 벌칙규정을 행정벌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 오롱, 카프로락탐 최대주주
나일론 3사 역학관계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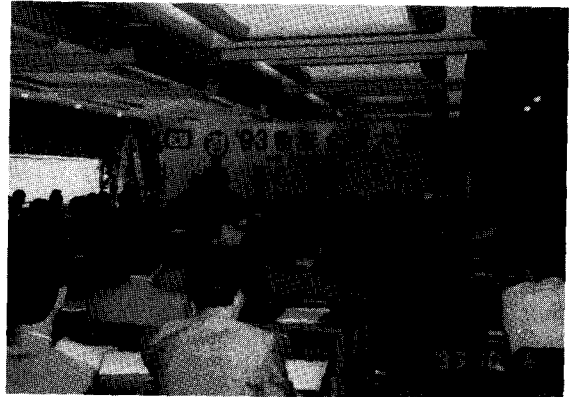
코오롱그룹이 가명 및 차명으로 갖고 있던 한국카프로락탐 주식 10.6% (51억원 상당)를 이웅렬 부회장 명의로 실명화, 기존 보유분을 합쳐 29%를 갖는 최대주주로 등장함에 따라 나일론 3사간 역학관계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전까지 최대 주주였던 동양나일론(19.2% 소유)은 “코오롱이 29%를 갖게 됐다 하더라도 카프로락탐 경영권을 지배할 수는 없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매우 신경이 쓰인다는 눈치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한국카프로락탐은 동양나일론, 코오롱, 고려합섬(5.8% 소유) 등 나일론 3사가 원료인 카프로락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동출자, 설립한 국내에 하나뿐인 카프로락탐 생산업체로 그동안 3사 합의방식으로 경영이 이루어져왔다.

그동안 나일론 3사는 이 회사에서 생산한 카프로락탐을 지분을 50%, 공칭 생산능력 25%, 전년도 생산실적 25%의 비율로 가중치를 계산 배분해 왔는데 지분율이 바뀐에 따라 이 비율도 바뀌게 됐다.

그러나 지금도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율변경에 따른 카프로락탐 배분비율 변경이 나일론 시장 판도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국물류관리협의회가 주최해 연 '93물류전국대회 모습

물 류관리협의회, 물류대회 개최
신세계 종합대상 수상

'93 물류전국대회가 지난 10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장에서 관계 전문가 및 업계관계자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업의 물류발전을 돕고 물류의 중요성을 국민적 관심사로 확대 고취시키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물류관리협의회(회장 안태호)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서는 앞선 물류시설을 갖추고 있는 신세계백화점을 비롯, 8개 업체가 물류대상을 받는데 이어 대한통운의 물류혁신계획, 일본기업의 물류표준화, 물류선진기업의 성공사례 등의 발표가 있었다.

부문별 물류대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대상(물류종합) : 신세계백화점
- ▲포장부문 : 제일제당
- ▲하역부문 : 대한통운
- ▲배송 및 보관부문 : 동서배송운수
- ▲수송부문 : 용마유통
- ▲전산부문 : 삼양사
- ▲물류기기 : 오로산업
- ▲공로부문 : 한양유통

신 문용지 남아들 듯
잇따른 증설로 공급과잉 우려

그동안 공급부족을 겪었던 신문용지가 오는 95년부터는 국내생산량이 수요를 초과, 공급과잉을 나타낼 전망이다.

제지업계에 따르면 한솔제지가 이달 초 연산 24만t 규모의 6호기를 완공, 신문용지생산능력이 연산 64만t으로 늘어나는데다 대한제지도 기존 생산능력을 오는 95년 하반기까지 26만8천t으로 확장키로 했다는 것. 또 신호제지 계열의 온양팔포도 청원에 연산 12만t급의 신문용지초지기를 오는 95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95년말이면 국내 신문용지업계의 생산능력은 현재보다 55만t 늘어난 연산 1백30만t이 될 전망이다.

업계가 추정하는 국내 신문용지 수요는 94년 85만t 내외, 95년 95만t 내외에 그치고 있어 96년 이후에는 연간 30만t 이상의 신문용지가 남아들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한솔제지등 업체는 신문용지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타업체와 제품차별화를 위해 신문용지 경량화에

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신문용지는 지난 85년까지만 해도 연간 생산량의 약 5%를 수출해왔으나 지난 87년부터 신문의 창간 복간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급증, 89년부터 수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20만t이 수입됐다.

국 내최대 압연공장 증공
대한알루미늄, 연산 12만t 규모

현대계열의 대한알루미늄은 연산 12만t(열연은 16만t) 규모의 울산 압연공장을 완공, 지난 10월 8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대한알루미늄은 이와함께 96년부터 이 공장의 열연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장, 98년에는 단일공장으로서 세계 최대규모인 연산 30만t 체제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알루미늄 울산 압연공장은 지난 90년12월 착공, 2년10개월만에 완공된 것으로 총 3천5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공장은 기존의 소규모 국내 압연업체들이 쓰고있는 CC공법(연속주조방식)과 달리 DC공법(직랭주조방식)을 채택, 항공기, 등산용품 캔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품질의 알루미늄 소재 생산이 가능토록 돼 있다고 대한알루미늄은 설명했다.

또 컴퓨터에 의한 완전자동제어방식을 갖추고 있어 분당압연속도가 1천8백m에 달하며 압연라인은 향후의 설비확장을 고려해 배치했다고 밝혔다.

대한알루미늄은 이 공장의 가동으로 그동안 주로 수입에 의존해 온 알루미늄 판재류에서 연간 4억달러 정도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 경에 전자재 유통센터 추진
선경, 연내 정식계약키로

(주)선경이 중국 북경시 근교에 전자재 유통센터 설립을 추진중이다.

선경은 북경시 산하기구인 북경진

자재 총공사와 공동으로 북경시 근교 西三旗 지역에 전자재유통센터를 합작으로 설립키로 합의, 현재 타당성조사등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西三旗 전자재유통센터는 중국전역에 해외에서 수입된 합판등의 전자재를 공급하는 유통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며 투자규모는 2천만~3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경은 중국의 건축수요를 감안할 때 전자재유통센터의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등 해외업체들도 북경시측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 중국정부로부터 무역업허가를 받는 대로 연내에 정식합작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무 공해 쿠션완충재 개발
우성산업, 플라스틱완충재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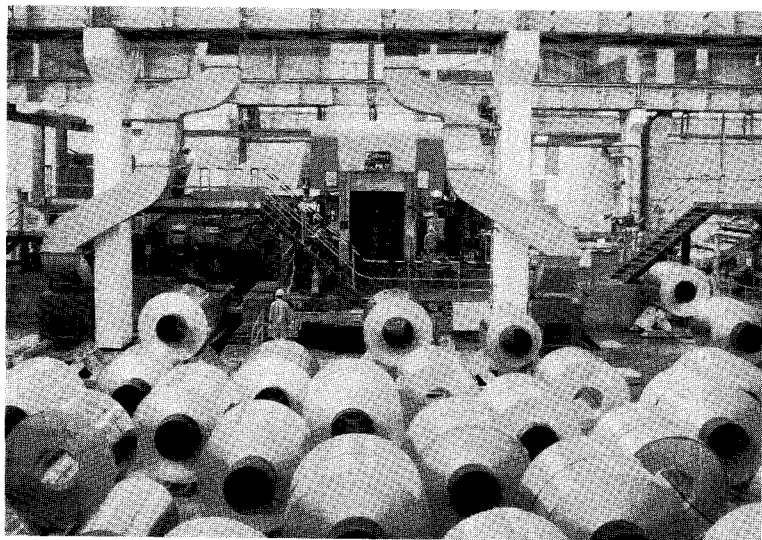
포장용 완충재 전문생산업체인 우성산업(대표 허인회)은 최근 무공해 쿠션 완충재인 「하니스폰지」를 개발했다.

고지로 만든 이 제품은 사용후 재활용이 1백% 가능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유발시켜왔던 기존 발포폴리스티로폴 및 플라스틱 완충재의 대체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제품에 비해 완충력, 복원력, 상하신축력이 뛰어나며 표면에 장식지를 접착, 포장에 미려감을 더할 수 있다.

특히 완충력의 강약조절이 가능해 어떤 제품의 포장에도 사용할 수 있는 등 응용폭과 용도가 다양하다.

우성은 「하니스폰지」가 전제품, 악기, 가구류 등의 포장에 쓰여왔던



▲ 울산의 대한알루미늄 압연공장 내부

스티로폴 원충재의 대체품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아래 본격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 포천에 대지 1천7백평 규모의 공장을 갖고 있는 우성은 가구의 심재로 쓰이는 「하니코아」등 13가지 종이소재 무공해 원충재를 개발해 왔다.

연말에는 목재와 강도가 비슷한 종이팔레트도 선보일 계획이며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20억 원을 잡고 있다.

포 장협회, 영업부서장 세미나 개최
한국기업의 21세기 전략 등 강연

한국포장협회(회장 한용교)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영업부서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경기침체와 최근의 금융실명제 등 경제 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활력소가 되는 한편 각사 영업 부서장의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1백여명의 영업부서장이 참가하였다.

강의는 이면우 서울대 공학 연구소장, 김영한 하이테크마케팅 연구소 소장, 박영구 포장협회 부회장이 맡아 각각 '한국기업의 21세기 전략' '고객만족' '연포장 영업의 문제점 및 협회운영'이라는 주제로 실시하였다.

S KC, 해외생산체제 강화
미 마이크로필름업체 인수

비디오테이프 및 폴리에스테르필름 전문업체인 SKC가 미국 마이크로필름업체를 인수하고 중국 비디오테이프 공장을 증설하는 등 해외 생산

한국포장협회가 연
포장업체 영업부서장
세미나 모습



체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SKC는 지난 9월 24일 세계화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1천2백50만달러를 투자, 마이크로필름을 생산하는 미(美) 아나콤사를 인수기로 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에 있는 아나콤사는 SKC가 지난 88년부터 폴리에스테르필름을 공급해 온 필름가공 전문업체로 SKC는 공장 인수절차가 끝나는 12월초부터 마이크로필름을 연간 6천t 정도 생산, 현지에 판매할 계획이다.

회사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 현지법인인 SKC 아메리카의 증자와 현지금융을 통해 조달한다.

이 회사는 또 홍콩 인데슨사와 합작으로 중국 福建省에 설립한 비디오테이프공장의 생산시설은 오는 11월 말까지 현재 월간 1백50만개에 2백50만개의 수준으로 증설기로 했다.

이로써 SKC는 지난 89년 미국 뉴저지에 설립한 알루미늄 코팅필름공장을 포함해 해외 현지공장이 3개로 늘어나게 됐다.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독일, 일본에 현지법인을 갖고 있는 이

회사는 홍콩 연락사무소도 내년중 법인으로 승격시켜 동남아시아 공략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단 열재 '베스티보드' 생산
제일모직, 유통구조도 개선

제일모직은 업계 최초로 단열재 생산자와 원료공급자가 공동으로 브랜드를 관리하는 새로운 유통체제를 갖추고 고품질 단열재 '베스티보드'를 선보였다.

베스티보드는 제일모직이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상표권만 출원·관리하며, 제일모직이 생산하는 스티로폴 원료인 '스타렉스 EPS'를 공급받는 생산업체 6개사를 선정하여 생산토록 하였다. 6개의 생산업체는 베스티보드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제일모직이 지정한 규격수준을 철저히 지켜 생산하며 제일모직과 공동으로 품질보증위원회를 운영하여 완벽한 품질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최종 판매에서도 6개 생산자와 각각 특약점 관계를 맺은 판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베스티보드는 색소가 전혀 첨가되

지 않은 순백색의 고품질 단열재로서 1호부터 4호까지와 특호 등 5개 등급이 생산된다. 1호부터 4호까지는 KS 규격 1-4호의 정해진 물성 수준 이상으로 생산·품질관리 하며, 특호는 스티로폼의 가장 뛰어난 단열성을 나타내는 비중인 0.035g/l로 제품을 생산하여 기존 제품과 차별화시켰다.

또한 모든 제품에 뛰어난 자기소화성질을 부여, 우수한 난연성을 지니도록 하였다.

외형에 있어서도 기존 제품과는 달리 포장하여 브랜드와 제품비중, 생산자 등을 명기하며 등급별로 브랜드 색상을 달리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후발업체인 제일모직이 유통구조 개선에 먼저 나섰다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스티로폼의 이미지 개선과 가격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환영하고 있다. 또한 기존 EPS 공급업체 일부는 비슷한 제품을 개발, 시장 참여를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스티로폼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단열재 시장에 품질 경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 일, 폐지활용 포장재 생산
국내 첫 펄프몰드사용 성형품 제조

국내에서도 환경보호차원에서 폐지를 재활용한 각종 포장재가 본격적으로 생산된다.

(주)한일(대표 이광문)은 전북 김제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펄프몰드를 활용한 포장재양산설비를 갖추고 시험가동을 거쳐 제품생산에 나섰다.

펄프몰드는 지난 30년대 덴마크에서 개발된 것으로 제품의 용도에 따라 금형을 제작, 폐신문지등 각종 고

지를 물과 지력증강용원료, 물감, 난연제 등에 혼합 분해시킨 펄프용액으로 진공탈수성형 및 건조시켜 각종 성형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 1년 동안 총투자비 50여억원을 들여 대지 2천5백평, 건평 1천여평 규모의 공장에 펄프용해기, 성형기, 건조기 등 각종 첨단생산설비를 도입설치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전주 및 광주지점으로부터 하루 20t의 폐지를 공급받아 각종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다.

금 속분말 제조기술 개발
순천대 반대찬 교수팀

스테인레스강 제조공정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로부터 고급 금속분말인 스테인레스강 편상분말 및 미세분말 등을 제조하는 기술이 세계 처음으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순천대학교 금속공학과 반대찬 교수팀은 지난 9월24일 스테인리스강을 만들때 나오는 각종 슬러지를 재활용해 편상분말등 스테인리스강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 국내에 특허출원 했으며 미국등 10개국에 특허출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스테인레스강 금속분말을 국산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반교수팀의 신제조공정은 슬러지를 분쇄한 다음 열처리해 만드는 3단계 공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이나 가스를 이용한 아토마이징공법에 비해 공정이 간단하고 특정한 장비가 필요없어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테인레스강 금속분말은 도료 촉

매 소결 및 전자제품의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첨단소재로 미국 일본 스웨덴 3국만이 제조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교수팀은 이 방법으로 월 1백t의 스테인레스강 분말을 생산할 경우 연간 30여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연필프 종이컵 양산
경호, 1백% 재활용 가능

지기생산업체인 경호(대표 송기환)가 무공해 천연펄프 종이컵을 개발, 본격 생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충북 진천공장의 PE컵 생산라인을 무코팅 용도로 개체, 분당 1백60개 무공해종이컵을 생산할 수 있는 고속자동화시설을 갖췄다.

이와 함께 초음파로 마찰열을 발생, 외면에 손상을 주지않고 접착시키는 초음파방식의 무코팅 종이컵도 개발, 상품화했다.

경호는 생산된 무공해컵을 최근 L 음식점인점에 출하, 호평을 받았으며 동남아국가와 수출협상도 추진중이다.

또한 알루미늄컵, 레인지용 용기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대평산업과 2년여의 연구끝에 공동개발한 이 컵은 1백% 재활용이 가능한 반면 양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기업 전용공단 추진
김포, 포천, 경산에 15만평 규모

경기도 김포와 포천, 경북 경산 등

3개 지역에 중소기업전용공단이 조성되고, 7개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이 건설중이거나 내년중 착공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정감사자료에서 중소기업의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와 포천, 경북 경산 등 3개 지역에 모두 15만여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건설키로 하고 이달안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규모는 경북 경산공단이 대지 8만평으로 7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고, 경기 포천공단이 5만4천4백50평으로 52개 업체, 김포공단은 1만8천1백42평에 30개 업체가 각각 입주할 수 있다고.

아파트형 공장은 서울 월계지역(대지 9백8평, 건평 2천9백96평) 수원 우만지역(대지 6백50평, 건평 2천9백66평) 부산 모라지역(대지 7백23평, 건평 3천10평) 광주 하남지역(대지 1천2백30평, 건평 2천8백35평) 등 4개 지역에서 건설중이며 내년중 서울 중계지역과 수도권, 지방 등에 3개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표 플라스틱 단체표준 제정착수
프라스틱조합, 3백여종 대상

국내 3백여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단체표준이 만들어진다.

프라스틱조합은 조합원사의 품질과 생산성향상, 원자재부품의 공동구매에 따른 원가절감 등을 위해서는 플라스틱제품의 단체표준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최근 이에 대한 작업을 본격 착수했다.

조합은 22개 분과위원회에 자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규격에 대해 자료

를 요청하는 한편 선진외국의 규격에 대한 자료도 한국표준협회등에 협조 요청해 놓고 있다.

프라스틱조합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제품을 총망라하는 이 단체표준을 KS뿐만 아니라 ISO(국제표준화기구), 미국 ASTM, 일본 JIS, 독일 DIN, 영국 BS 등의 외국 규격과 비교검토해 국내실정에 맞고 인장강도등 물성이 상회하는 규격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플라스틱제품은 3백여종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는 KS규격이 1백여 품목에 불과하여 나머지는 정부기관이나 발주업체들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협기관 연구설비 DB화
공진청, 데이터 통해 정보 제공

공업진흥청은 데이터베이스화한 각 시험기관의 연구설비를 지난 10월 14일부터 데이터의 천리안에 연결,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시험연구설비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토록 했다.

이번 천리안에 연결된 시험연구설비는 지방공업기술원, 민간검사소,

대학 및 기업체 부설연구소 등 총 4백54개 기관에 9천20종이다.

시험연구설비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설비보유기관명, 설비명, 시험항목, 설비정밀도 이용방법 등 17개 사항이 수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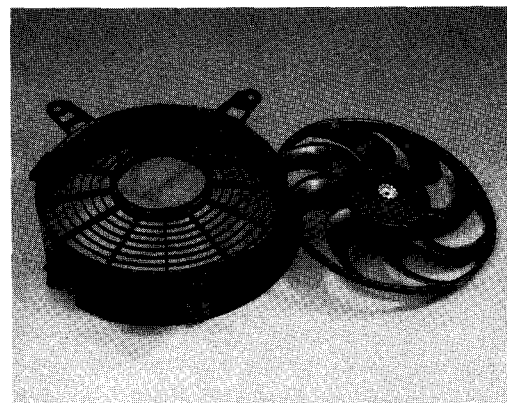
시험연구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단말기의 천리안을 통하거나 지방공업기술원의 전산망을 활용, 검색하면 된다.

표 양나이론, 저흡수성 나일론수지 개발
엔지니어링 소재 용도 확대 기여

동양나이론(대표 구창남)은 국내 처음으로 저흡수성 나일론 수지의 개발에 성공하여 안양공장에 연산 1천톤 규모의 양산설비를 갖추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된 수지는 동양나이론 중앙연구소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의 용도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91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3년여의 연구 끝에 완성한 것으로서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제조기술의 이전을 기피하는 최첨단 소재다.

저흡수성 나일론 수지는 기존 나일론 수지보다 충격강도가 강하고 물성



동양나이론에서 개발한 저흡수성 나일론수지로 만든 제품

균형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비강화타입과 유리섬유 강화타입, 미네랄 강화타입 등 세가지 타입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유리 섬유 강화타입은 탁월한 강성과 내열성을 보유하고 있어 금속을 대체하는 용도에 적합하고 세가지 타입 모두 가공성형성이 우수하여, 크고 복잡한 성형물의 제조가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휠캡 등 자동차부품과 전지 전자 부품에 이상적인 소재다. 이 제품의 폭넓은 용도 전개가 예상됨에 따라 동양나일론은 내수전개는 물론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 농업용 필름공장 제동
중기고유분야 진출에 민원쇄도**

농협이 당초 신규 설립기로 했던 농업용 PE필름과 골판지공장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농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분야 진출에 대해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림수산부가 공기업인 농협과 중소기업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라는 내용의 사업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농협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농업용 PE필름, 골판지, 장류, 김치, 배합사료 제조업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제한은 없으나 농협의 조직이나 경제력을 감안할 때 관련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또 농협이 영농자재생산의 직접참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합 등의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못박고 농협중앙회나 회원조합의 협동회사업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농

림수산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포성, 제함포장기 국산화
분당 40~60박스 생산**

동성포장기계(대표 정완용)는 최근 고속으로 생산되어 나오는 캔, 유리병, 패트병 등을 자동 포장해주는 제함 포장기를 국산화했다.

3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개발한 이 기계로는 종전에 분당 10~20박스씩 포장하던 것을 40~60박스까지 생산이 가능해 생산성은 물론 인건비 절감에도 큰 효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이 기계는 안정성, 견고성, 정확성 등이 뛰어나고 고장이 거의 없으며 몇가지 제품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포장기술인협의회 세미나 개최
'연포장공장의 자동화' 주제 등**

포장업체 기술인들의 모임인 한국 포장기술인협의회(회장 김선창/남경화학(주) 대표)가 지난 10월 2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수성 그래픽 잉크의 개발현황과 금후동향', '지구환경에 대한 인쇄잉크·코팅 기술 동향', 'EVOH Resin의 특성 및 가공기술', '연포장공장의 자동화'로, 香田裕誌 CONVERTECH JAPAN 편집인, 高橋 亨 일본 KURARAY CO., LTD 상품기획개발 제2부장, 이진재 울촌화학(주) 이사가 각각 강의를 맡았다.

**설비관리 대상
제일합섬 선정**

능률협회컨설팅은 지난 10월 10일 제일합섬을 설비관리 대상 수상업체로, 대우조선을 설비관리 사업부문상 수상업체로 각각 선정 발표했다.

제일합섬은 지난 90년부터 TPM(전사적 생산보전)운동을 통해 생산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설비고장율을 크게 줄여 상을 받았다.

제일합섬은 작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9억6천만원을 투자, 2천3백49건의 불량설비를 고치고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28억원을

▼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가 연 세미나에서 울촌화학 이진재 이사가 '공장자동화'에 대해 주제발표하는 모습.



투입했다.

신 세계, 물류부 독립법인화 내년초 업계 처음 시행

신세계백화점이 현 물류부를 자회사로 별도 법인화한다.

내년초 이루어질 신세계 물류부의 별도법인화는 업계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상품판매행위와 이에 따른 상품이동을 분리, 물류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신세계는 이미 올해부터 물류부를 독립채산체로 운영, 현재 연간 37만 건에 이르는 배달시 배달과 동시에 설치를 요하는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건당 1만2천원씩, 그의 상품은 6천원씩 지불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신세계는 이에 따라 과거 대부분 업체들이 단순한 서비스 개념 아래 상품배달등의 물류비용을 간접비용화했던데서 탈피, 물류개념에 입각한 판매로 실익중심 경영을 추구한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물류부가 자회사가 될 경우 신세계 뿐만 아니라 여타 중소백화점의 물류도 위탁받아 대행해주는 등 택배회사 성격을 띠 전망이다.

해 외전문가 초청 포장세미나 개최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주최

한국포장기술연구소(소장 김영호)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해외전문가 초청 포장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시장에서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료 용기의 개발개선

으로 매출액을 배가시킨 포장물의 실물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포장디자인 업계와 포장재료, 용기분야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연제 및 연사는 아래와 같다.

▲매출을 배증시킨 PACKAGE DESIGN : PM기획(주) 대표이사 岩田 利雄

▲매출을 배증시킨 PACKAGE 소재형상 및 SIZE : 일본포장 CONSULTANT(주) 대표이사 石田 修

산 학협동 물류자동화 연구 포스데이타, 포항공대 공동으로

포스데이타가 포항공대 정보통신연구소와 「물류자동화연구단」을 구성, 산학협동으로 물류시스템을 개발한다.

포스데이타는 포스데이타 연구진과 포항공대 교수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될 물류자동화연구단 출범식을 지난 9월 23일 포항공대 정보통신연구소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한 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품질제도 교육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지난 10월 12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회의실에서 품질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선 공업진흥청 담당관을 강사로 ISO 9000 시리즈에 의한 국제품질보증제도의 이해와 국내도입 및 화학, 생활용품분야 공산품 품질표시제도에 관한 강의를 진행되었다.

이 아시아 자원리사이클링 국제심포지엄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참가

한국자원리사이클링학회(회장 오재현)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대만 중국 등으로부터 자원재활용기술 관련학자, 전문가, 재활용 산업체 관계자 등 1백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동아시아 자원리사이클링 국제심포지엄」을 가졌다.

전 자레인지용 라면용기 개발 동진플라스틱, 8분이상 원형유지

내열성이 뛰어나 전자레인지에도 사용이 가능한 라면용기가 국내 용기제조업체에 의해 개발됐다.

식품용기 제조업체인 동진플라스틱(대표 송석환)은 최근 전자레인지에서 8분정도 가열해도 변형이 없는 용기를 개발, 빙그레에 납품하고 있다.

기존의 열에 약한 PSP 용기는 전자레인지에 넣을 경우 2차 발포가 일어나 열성이 약해져 쉽게 변형이 났으나 이번에 개발된 내열성 용기는 이런 단점을 완전히 보완했다.

약 2년전에 1차로 개발됐던 이 용기는 원료배합비율기술이 다소 부족해 식품포장 용기로 사용하기는 역부족 상태였다.

그러나 동진은 이번에 국내 GE플라스틱사의 도움으로 roly(내열성) 원료를 들여와 GP원료와 적당량으로 배합, 열차단성 및 비다공성유지에 큰 효과를 가져와 그동안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더욱이 이 용기에 HIPS코팅을 함

으로써 열차단효과를 더욱 높여 1백도가 넘는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게 했고 광택을 통한 청결성을 강조했다.

용기캡도 내열성이 있는 PP재질을 사용,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변형이 없도록 했다.

O OPP테이프 포장완전자동화 동양기계, 자동정렬포장기 개발

화장지 포장기계 전문제작업체인 동양기계(대표 이기태)가 OPP테이프 자동정렬포장기 「DYM-703」을 개발, 본격 시판에 나섰다.

동양기계가 개발한 OPP테이프 자동정렬포장기는 대량으로 생산된 OPP테이프를 자동으로 정렬시켜 OPP필름으로 포장하는 기계이다.

이 기계는 정렬에서 포장까지 완전 자동화를 실현, 인력절감등 경제적인 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그동안 수입돼오던 외국제품과 비교할때 가격이 30%이상 저렴해 수입대체효과도 기대된다.

이 기계는 OPP테이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렬기에 투입되면 정렬된 제품이 컨베이어를 타고 가면서 자동으로 3면 접착되도록 제작됐다.

DYM-703은 포장된 테이프의 카운터기능과 센서장치가 부착돼 있어 불량유무가 자동으로 판별된다.

안전성을 위해서는 급정거장치를 장착하여 테이프의 공급오류나 이물질이 투입됐을 때 자동으로 정지되는 등 갑작스런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기능이 탁월하다.

또한 각종 테이프는 물론 베어링 등 원형의 산업제품 포장에도 헤드의 간단한 교체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

에 기계 한대로 다양한 제품을 포장할 수 있다.

자동공급형 상단식 3면 열접착인 이 기계의 포장재료로는 PP CPP OPP+PE 나일론 등 가열접착이 가능한 모든 필름이 사용된다.

동양기계는 DYM-703의 경우 대당 4천5백만원선에 보급할 예정이다.

P S업계 최초로 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한남화학, 환경오염방지에 기여

미원그룹의 한남화학(주)(대표 이덕림)은 최근 미원식품(주)과 PSP(발포스티렌 시트 발포체) 업체인 부림포리마(주)와 공동으로 2년여 연구 끝에 분해성 EPS 및 PSP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기존의 플라스틱 발포체는 일반 자연 조건하에서 분해되지 않지만, 이번에 개발한 플라스틱의 경우 분해속도가 1백~5백배 이상 빨라 약 10년 이내에 완전 분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한남화학측은 밝혔다.

분해성 EPS 및 PSP는 생분해성을 갖는 천연 고분자(전분)와 자동산화제가 함유된 분해 첨가제를 범용수지에 도입시켰다.

이 제품의 특징은 기존의 압출, 발포 가공기를 바꾸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며, 성형재료로서 일반 EPS 발포체 및 PSP 발포체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물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 배율까지 발포가 가능하며 형내 성형시 임의의 성형체를 얻을 수 있다.

경량성, 가공성, 유연성, 부력성 등의 뛰어난 식품 및 과일 등의 일회

용 포장용기 또는 전기, 전자, OA 등의 완충재 및 운반상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한 일그룹, 조직개편 한일합섬사장 김정재

한일그룹(회장 김종원)은 지난 10월 11일 한일합섬 사장에 김정재 회장실 사장을, 국제상사 사장에 문진석 연합물산 사장, 남주개발 사장에 조상진 한일합섬 사장, 연합물산 사장에 박명식 국제상사 사장, 한일레저개발 대표이사에게 김길영 남주개발 상무를 각각 선임했다.

이와 함께 한일그룹은 그룹 회장실을 폐지하고 주력사인 한일합섬에 기획실장을 신설, 이걸 회장실 상무가 기획실장을 맡아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정했다.

한 국화학공학회 수석부회장 유경중씨

한국화학공학회는 지난 10월 9일 한국비료공업 유경중 사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했다.

기 계공업진흥회 비상근회장 김선홍씨

기계공업진흥회는 지난 10월 8일 기계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26회 임시총회를 열고 김선홍 기아그룹 회장을 비상근회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상근 부회장으로는 지난 9월 24일 김순 前특허청 항고심판소장이 선임되었다.

석 유화학공업협회 비상근부회장
최근선, 박원배, 박종률 3명 선임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지난 10월 16일 제 2차 임시총회를 갖고 최근선 (주)럭키 사장, 박원배 한양화학 사장, 박종률 유공 부사장을 비상근부회장에 선임했다.

제 일모직, 신사옥 이전
본사, 의류사업부, 직물사업부 등

제일모직(대표 채오병)은 최근 서울 역삼동 702-2에 신사옥인 삼성제일빌딩을 마련하고 본사(태평로)와 의류사업부(역삼동), 직물사업부(서초동) 등을 이 빌딩에 모두 모아 지난 10월 18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제 일합섬, 조직개편
1실2본부 체제로 기구축소

제일합섬은 지난 9월 27일 각 사업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조직을 대폭 개편하는 한편 임원들의 담당업무도 조정했다.

제일합섬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지원실과 경영기획실을 통합하고 직물사업본부장제를 폐지, 제품별사업부와 대표이사가 곧바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단계를 줄이고 각 사업부장이 생산과 판매를 모두 책임지도록 했다.

기구개편에 따른 임원업무위축변화는 다음과 같다.

- ▲기술본부장 서동균 전무
- ▲필름판매사업부장 김성재 상무
- ▲장섬유사업부장 박순정 상무
- ▲면직물사업부장 신연철 대우이사

- ▲기술연구소장 임대우 대우이사
- ▲부직포담당 김준옥 담당
- ▲엔지니어링담당 권영대 담당
- ▲염가공연구소장 김재웅 담당
- ▲생산기술센터장 손영호 담당
- ▲화섬직물사업부장 김상도 담당

중 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몽골 상공차관과 협의

이병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지난 10월 7일 방한중인 몽골의 간바타 상공차관 일행의 방문을 받고 몽골의 기술인력연수 등 양국 중소기업 협력증진방안을 협의.

한 국듀폰 사장에 김종세씨

한국듀폰은 지난 10월 1일자로 레이앤더스 사장 후임에 김종세 상무를 승진 발령했다.

김사장은 한국듀폰의 첫 한국인 사장이며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듀폰에 이어 두번째 자국인 사장이 된다.

김 명학 (주)디엔시 차장

패키지사업국 부국장으로 승진

김 성대 동양제과 포장과 대리
포장담당2과 과장으로 승진

포 업표준협회, 국제물류대회 개최
아·태물류관리연맹 12개국 참가

한국공업표준협회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롯데호텔에서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물류전략」이라는 주제로 '93국제물류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표준협회(KSA)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공업진흥청장의 축사, 연세대학교 송자 총장의 기조설로 이어졌다.

그 외에도 Mr. Iwane Takahara 로지스틱스(주) 사장이 「일본기업의 물류혁신전략」에 관하여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미국, 일본, 호주, 한국, 싱가포르, 중국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21일에는 「기업의 물류전략에 있어서 현상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하에 각국 대표들의 패널토의가 진행되기도.

▶ 공업표준협회가 개최한 '93국제물류대회 광경



과대포장 규제 이후 업계반응

— 환경처 · YWCA 실태조사 —

환경처는 늘어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포장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대한 규칙'을 8월 17일 공포하고 9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그 법에 따르면 종합제품의 포장에는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폴)의 사용이 금지되고 모든 제품에 대하여 PVC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는 쓸 수 없게 된다. 또한 백화점, 쇼펍센터 등에서 포장한 제품을 팔 경우 포장 횟수를 제한하였다.

따라서 추석을 앞두고 선물종합세트류를 제조하는 회사는 그동안 포장재로 많이 사용했던 발포폴리스티렌을 종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대체하는 등 저공해 포장재를 사용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형 백화점에서 포장판매하고 있는 과일, 갈비, 정육, 선물세트류는 아직도 스티로폴을 종전과 다름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YWCA 사회문제부에서는 선물세트의 포장재질 및 방법에 대해 서울시내 11개 백화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갈비선물세트의 경우 제품을 비닐포장한 후 플라스틱 또는 등나무를 받침으로 쓰고 랩으로 포장한 뒤 스티로폴로 전체를 포장하고 이를 보자기나 가방 등에 집어 넣는 등 삼중사중으로 포장하고 있다.

과일선물세트는 제품자체를 색지와 스티로폴로 부분포장하고 리본으로 제품 꼭지 부분에 모양을 낸 후 비닐조각이나 종이조각 또는 스티로폴을 바닥에 깔 싸리나무 바구니에 제품을 담은 다음, 비닐이나 종이포장지로 싸고 그위에 종이포장지로 전체포장을 한 것이 일반적이다.

환경처도 시행규칙의 현장이행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17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시내 11개 주요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중 과대포장의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구입하여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검사, 분석을 의뢰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81개 상품중 72%에 해당하는 58개의 상품이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초과하였고, 특히 선물세트의 경우 과대포장이 두드러져 총 43개 세트중 93%에 해당하는 40개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류, 세제류, 가공식품류, 기호식품류의 선물세트에서는 점검대상상품 모두 포장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간비율의 기준을 초과한 58개 상품중 50%에 해당하는 29개 상품이 기준

을 100% 이상 초과하는 과대포장의 경향을 보였다.

환경처는 기준에 발표한 과태료 부과 이외에 업계로 하여금 정부의 규제기준을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시,도로 하여금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상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대한 정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업체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시행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월 1일 환경처의 규제 이후로 PVC 코팅, 라미네이팅을 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이 도산하였고 선물세트용으로 스티로폴을 생산해 오던 업체도 용도전환을 하는 등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스티로폴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현재까지 오더의 큰 감소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환경처의 규제가 강화되면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이번 환경처와 YWCA의 조사는 백화점 선물세트의 포장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업계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에서는 이번 규제에 따른 신속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 포장관계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 논의를 하고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환경처에 제출하는 등 자신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과대포장 자체, 백화점 쇼펍백 사용 자체 등은 마땅히 앞으로 지향해야 하지만 보냉제로 쓰이는 스티로폴에 한해서는 예외시켜 주거나 가전제품의 경우와 같이 감량화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환경보전 측면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포장폐기물을 줄이려는 환경처의 방침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처럼 적절한 대책도 없이 법의 시행만 강행한다고 얼마나 효과를 거두게 될는지 의문이다. 물론 기업의 이익만을 차린 과대포장 남발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중량이 많이 나가는 가전제품이나 보냉제로 쓰이고 있는 스티로폴에 대해서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적당한 대체재를 개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고, 더구나 보냉제로 쓰이고 있는 스티로폴의 경우 우리나라 스티로폴 전체 생산량의 0.001%에 불과하다. 더욱이 환경처는 플라스틱 대신 저공해 대체재로 종이를 권장하고 있으나 여러면을 따져볼 때 종이보다 플라스틱보다 환경친화적이라는 이론은 아직 증명하기 어렵다.

작금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포장제조업자들의 우수한 대체재 개발, 불필요한 포장재 생산 자체, 사용자들의 적정포장 시행, 소비자들의 의식개혁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보냉제에 대한 대체재 없어 사용 불가피

인터뷰/신세계백화점 상품과학연구소 일대환 과장

'불필요한 과대포장 마땅히 근절돼야 하지만
국내 스티로폴 생산량의 0.001%에 불과한 보냉제로 사용되는
스티로폴 규제에 대해선 아직 적당한
대체재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처가 다시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 환경처가 지난 8월 17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백화점업계에서는 이 규칙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환경처의 규제발표에 따라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노력을 기할 것이나 보냉제로 쓰이고 있는 스티로폴에 대해서는 업계의 반발이 심해 백화점협회 차원에서 국립공업기술원에 '냉동상품 보냉을 위한 EPS사용 관련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백화점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동상품 보냉을 위한 EPS사용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으로 첫째, EPS와 타재료와의 보냉효과 비교분석, 즉 각 재질의 열전도를 비교, 동일 열손실량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두께의 비교, 보냉효과의 비교, 성형성, 경제성, 위생성 측면에서 EPS사용 타당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EPS 연간 사용량이 18만톤인데 반해 백화점업계에서 보냉제로 사용하고 있는 양이 200톤, 0.001%에 불과하니 그 규제를 완화시켜 주거나 제외시켜 줄 것을 덧붙여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공업기술원은 EPS사용금지만을 재반복하는 성의없는 답변을 해왔기에 협회는 다시 질의서를 보내 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았으며 이것을 곧 환경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이번 조사에 따르면 비교적 신세계는 스티로폴 규제에 노력하고 있다던데.

—보냉제로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폴 이외의 모든 상품의 스티로폴 사용을 배제했고, 선물세트에 스티로폴 공간비율을 30% 감소시켰습니다.

소비자가 부피가 큰 것을 선호하므로 타백화점에서는 망설이고 있으나 이번에 저희 신세계에서 과감히 시도했으며 앞으로 최대 40%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화점들이 동참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겠죠.

▲ 그 외에 신세계가 환경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기준에 사용하고 있는 비닐에 비해 단기간에 분해되는 분해성 비닐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가가 30% 이상 비싸긴 하지만 환경을 고려한 신세계의 노력입니다.

저희 상품과학연구소는 원래 백화점에 들어가는 전상품을 시험하는 곳인데 현재는 포장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닐백을 가져오면 사과나 감자를 주어 쇼핑백을 회수하고 있고, 쇼핑백 전량을 재생종이로 사용하는 등 환경사업에 나름대로 힘쓰고 있습니다.

▲ 앞으로 환경처의 포장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세계도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과대포장 근절을 위한 '포장개선안'을 마련하고 각종 포장물의 과대사용, 이중포장을 근절시키기 위한 작업을 이미 8월부터 전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매장 내에서 '한 쇼핑백에 넣어 드리기', '함께 포장 해드리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환경측면에서도 앞으로 계속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